



全南大學 同窓會報



<제485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26년 1월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성황리 개최

류혜경 총동창회장 “창립 70주년, 모교와 함께 도약하는 한 해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가 1월 8일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과 임원과 동문, 모교 이근배 총장과 대학 보직자, 양부남·이개호·전진숙·정진욱 국회의원, 산하 유관단체 임원 및 동문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를 맞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함께 기원했다.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창학 117년, 개교 74년, 총동창회 창립 70년, 여수캠퍼스 통합 2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동문 간의 친목과 자긍심을 높이고,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대학 정문에 ‘기억’을 테마로 한 세계적 정원 조성 ▲5·18, 4·19,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자취 재현 ▲추모조형물 제작 ▲새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광주·여수 음악회 개최 ▲재학생 대상 창업 및 공직설명회 등을 주



류혜경 전남대학교총동창회장



이근배 모교 총장

요 행사로 소개하며 “모교와 총동창회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근배 모교 총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나해 전남대는 글로벌컬대학30 선정과 AI 캠퍼스 대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이뤘다”며 “이는 동문들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AI 기반 교육과 연구, 미래 인재 양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를 통해 세계 속으로 도약하겠다”며 “전남대가 동문들에게 늘 자랑스러운 모교로 남을 수 있도록 책

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양부남·이개호·전진숙 국회의원의 새해 덕담, 정진 전 남대병원장, 김민수 교수평의 회장, 오형석 본회 이사장, 총학생회장의 건배사로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서는 축하패(12명), 공로패(6명), 합격자 축하패(48명)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오찬으로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건네며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축하패

이름	학과	영전/취임 내용
윤석하	사법·90	우리은행 광주전남제주영업본부장
강덕원	정책·일반행정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유병용	농업경제·88	LN광주전남본부장
조기선	행정·86	광주CBS 대표
조충남	사회·89	전남CBS 대표
강창우	산업공학·92	(주)에스원 서울본부장
강동준	국어국문·85	무등일보 전무이사 겸 총괄사업본부장
문석환	경영·78	광주교통공사 사장
박학민	행정·8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김성훈	경영·85	인사혁신처 차장
윤동규	생활복지·22	제55대 총학생회 회장
김경서	유아교육·22	제55대 총학생회 부회장

공로패

이름	학과	보직명
최병근	법학·81	법대·법전원동창회장
오기석	수리학·77	수의대동창회장
서영숙	가정관리학·85	생활대동창회장
김승용	경영자과정 50기	경영자과정동창회장
신승환	고분자융합소재·19	제54대 총학생회 회장
진영채	임산공학·22	제54대 총학생회 부회장

합격자 축하패

■ 법관 임용

- 재판연구원 : 21명
- 검 사 : 4명
- 판 사 : 6명
- ※ 재판연구원 및 검사에 중복합격 1명

■ 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자

- 공인회계사 : 4명
- 세 무 사 : 14명

전남대학교총동창회 2026년 신년인사회

“2026년, 용봉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약하자”



공로패(오기석, 신승환, 진영채)



축하패(윤동규, 강동준, 유병용, 김경서)



합격축하패(고호건, 서호은, 문선주)



왼쪽부터) 이근배 총장, 신수정 의장, 류혜경 총동창회장,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이개호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푸른용봉회 동문 회원들의 모습



신년인사회 전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분양

산업시설용지(제조, R&D, 유통) 및
상업, 근생, 단독주택용지

분양문의 : (062) 600-666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국문 84학번)

새병원 건립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자 인터뷰

■ 정봉현(농화학·66) (주)백송기업 회장

■ 최희갑 자문위원·(주)지호 대표이사

“전남대병원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전남대병원이 조금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봉현(농화학·66, (주)백송기업 회장) 동문이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

하는 특별회비’ 모금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고마운 마음 덕분이다.

“신장 결석으로 고생할 때 전남대병원에서 큰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정봉현 동문은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을 찾을 때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며 안타까웠다”는 정봉현 동문은 “자의 약소한 도움이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병원을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첨단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봉현 동문은 “타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를 떠올려보면 졸업생들의 활발한 기부금 문화가 인상깊었다”며 “이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을 통해서 전남대도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병원 건립에 지역민의 손을 맞들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한 장씩 모으면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희갑 자문위원과 전남대의 인연은 1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희갑 자



문위원은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광주농고(창학 116주년)를 졸업하고 현재는 광주자연과학고(구 광주농고)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는 전남대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2022년 분회 명예회원으로 임명됐다.

특히 최희갑 자문위원의 전남대 사랑을 곁에서 지켜봐 온 그의 아내도 이번 벽돌 한 장 쌓기에 동참해 더욱 뜻깊다. “전남대병원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시설이 오래되어 낡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새병원 건립에 지역민들이 손을 맞들어 마음을 보태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희갑 자문위원의 전남대 사랑을 곁에서 지켜봐 온 그의 아내도 이번 벽돌 한 장 쌓기에 동참해 더욱 뜻깊다. “전남대병원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시설이 오래되어 낡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새병원 건립에 지역민들이 손을 맞들어 마음을 보태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요”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강원원(국어국문·94)	50만원	김정길(의학·67)	100만원	박지민(철학·09)	20만원	이윤모(행정·79)	30만원	주성범(미술·92)	20만원
강훈열(사범·86)	60만원	김제성(경영학과·86)	50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0만원	이인호(법학·92)	20만원	주순선(공법·86)	20만원
구용문(경영·72)	10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20만원	송선형(간호·86졸)	20만원	이효석(의학·01)	100만원	지영배(국민윤리교육·88)	20만원
김덕봉(일반)	100만원	김종해(지리교육·81)	100만원	송태복(의학·71)	10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20만원	차상혁(신학자원·14)	20만원
김보근(경희·97기)	100만원	김춘삼(간호·81졸)	20만원	신수정(세무회계학과)	20만원	임민택(농화학·67)	20만원	천두염(건축공학·73)	40만원
김보현(금속공학·79)	1,000만원	김택수(경제·72)	20만원	신승환(총학생회장)	20만원	임현준(교육대학원)	100만원	최중규(건축·70)	100만원
김부용(화학공학·71)	20만원	김혜영(간호·91)	60만원	안정욱(간호·77)	20만원	장원익(의학·65)	4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100만원
김성민(무역·87)	500만원	노영대(경희·77기)	40만원	양광섭(자원공학·75)	20만원	장희(화학공학·77)	200만원	최희동(원예학·74)	500만원
김영술(회계·81)	20만원	류혜경(의학과·76)	3,000만원	오상개(금속공학·76)	20만원	정동일(무기재료·86)	60만원	허정(의학·70)	1,000만원
김영필(회계·88)	20만원	박동민(교육대학원)	2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600만원	정봉현(농화학·66)	500만원	황선욱(의학·66)	2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20만원	박래전(경관·34기)	20만원	오하늬(환경공학·10)	20만원	정순근(행정·23기)	100만원	전남대총학생회	20만원
김용기(섬유공학·70)	2,00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20만원	오형석(불어불문·83)	2,000만원	정양석(물리·76)	100만원		
김재웅(경영·88)	20만원	박성열(농공학·91)	20만원	유경연(의학·70)	100만원	정인재(토목공학·65)	500만원		
김재희(경관·33기)	20만원	박윤영(농학·77)	100만원	이상수(행정대학원)	100만원	정준택(정치외교·79)	20만원		

(2026년 1월 10일 기준)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금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병원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 불편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병원 건립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9,629억원 중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 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총동창회에서는 시·도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류혜경 회장 2026년 신년사

모교 이근배 총장 2026년 신년사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미래로”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대학 정문에 '기억'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정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5·18 당일 사진을 그림으로 재현하고 4·19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담고자합니다. 개교에 공헌하신 이을식 전 도지사 추모조형물 제작,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1만 명 모금운동, 지역민께 감사하는 광주와 여수에서의 음악회 개최, 재학생을 위한 창업과 특수직 공직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창립 70년을 자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해는 이근배 총장께서 취임하시어 '다함께, 세계로 미래로 Together CNU'를 슬로건으로 주말을 반납하고 노력하신 결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는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대학 평가에서 30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총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는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축하패와 감사패를 받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후배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금년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이 모교와 총동창회가 다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5일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사람의 곁을 지키며 농경과 전쟁, 통신과 문명의 전파, 이동과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동이족을 '말 타는 민족'이라 불렀다고 하니 말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동물입니다. 또한 말은 추진력이 강하고 자유롭고 강한 에너지로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은 창학 117년, 개교 74년, 총동창회 창립 70년이 되는 해이며, 여수캠퍼스 통합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오형석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창립 7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알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꾀하며, 동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행사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도약의 해, 전남대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배

성찰을 전남대학교의 중요한 학문적 축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연구의 성과는 대학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 구축과 NRL 2.0 국가연구소 유치로 전남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지역 산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다시 국가 경쟁력 강화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고시·로스쿨 진학반을 포함한 융복합인재원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의 성장과 진로를 책임지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도전과 변화는 캠퍼스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캠퍼스 공간을 하나의 도서관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고, 열린 캠퍼스를 통해 대학의 경계와 담장을 허물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지식과 문화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전남대학교가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동문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성취는 동문 여러분 모두의 자산을 함께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모교를 믿고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전남대학교는 이 의미 있는 성과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가 축적해 온 자산과 저력을 바탕으로, QS 세계대학 30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전남대학교는 이 의미 있는 성과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가 축적해 온 자산과 저력을 바탕으로, QS 세계대학 30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전남대학교는 AI, 학문, 인재양성, 캠퍼스, 지역상생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첨단 AI 교육센터를 구축해 구성원 모두가 교육과 연구, 행정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문사회 진흥원 설립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2025년 1월 5일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배



본회·전남대, 8년 만에 송년음악회로 화합과 소통 장 열어

음악으로 전한 감사와 연대... 민주마루 전석 매진

전남대학교총동창회와 전남대학교가 지난달 30일 교내 민주마루에서 '2025년 전남대학교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8년 만에 열린 이번 음악회는 한 해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공동 주최하고 음악학과가 주관했다.



주관했다.

이번 공연에는 교직원과 동문, 학생, 지역민 등이 함께했으며, 총 920석 전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공연은 연발 분위기를 살

린 클래식과 대중음악 레퍼토리 구성돼,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송년의 장으로 완성됐다.

1부에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비롯해 푸치니·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이 연주됐다. 마지막으로는 '걱정 말아요 그대', '붉은 노을', '만남', '석별의 정리(Auld Lang Syne)'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협연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특히 '만남'이 연주되는 순서에서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 신승환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및 교직원들이 무대에 깜짝 등장해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큰 박수박음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허정(의학·70) 에덴병원장, 전남대병원에 후원금 5천만원 기탁

누적 기부액 총 1억 5천만원 달성...의료 공공성 및 인재 양성 기여

존경받는 의료인이자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본회 허정(의학·70, 광주에덴병원 원장) 상임 고문이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 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은 12월 23일 행정동 접견실에서 정 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와 기부자인 허정 에덴병원장, 최희동 전남대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로 허 원장이 전남대병원에 기탁한 총 누적 후원금은 1억 5000만 원에 달하게 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전남대병원의 의료 공공성 강화와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 원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 의이자 의학박사로, 1993년부터 에덴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여성과 가족 건강 증진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의료인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장과 대한사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허 원장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과 전남대병원 이사로서 모교와 지역 거점병원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쏟아왔다. 또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을 지내며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허 원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 의이자 의학박사로, 1993년부터 에덴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여성과 가족 건강 증진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의료인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장과 대한사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허 원장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과 전남대병원 이사로서 모교와 지역 거점병원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쏟아왔다. 또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을 지내며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허 원장은 "모교이자 지역 의료의 중추인 전남대병원에 앞장서고, 백범김구기념재단 상임부회장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허 정 원장은 "모교이자 지역 의료의 중추인 전남대병원



에 앞장서고, 백범김구기념재단 상임부회장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허 정 원장은 "모교이자 지역 의료의 중추인 전남대병원

이 '뉴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과 미래 의학도를 위해 이 후원금이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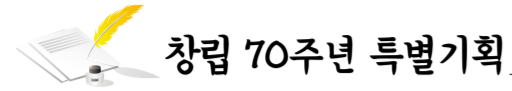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으로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New Smart Hospital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시작합니다.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사업기간 2025~2034년) 2030년 동안 준공 및 개원 예정 / 2034년 서안 준공 및 개원 예정



“총동창회 창립 70년, 함께 즐겁시다”

총동창회 창립 70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형석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준비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70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웁시다. 하이얀 천위에 차려진 맛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교 정문에 멋진 정원을 꾸밈니다. 기억을 주제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원을 만들어 우리 자랑스러운 전남대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에 대한 전통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5월 18일(일), 당일 아침 전남대 정문은 계엄군(공수부대)이 학생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인 우리 학생들은 교내 진입을 요구했고 계엄군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산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진압봉에 맞은 학생은 피를 흘렸습니다. 2~3차례 공방이 있었고

계엄군에 쫓긴 학생들은 광주역을 거쳐 금남로 도정으로 진출합니다. 5·18의 아침 상황이며, 5·18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그 당시의 사진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46년이 흘렀습니다. 총동창회 창립 70년을 맞이하여 그날 아침의 상황을 그림으로라도 재현하여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림의 원본은 전남대학교 내에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공개전시하고 정원에는 부조로 만들어 그날을 기억하려 합니다.

기억 정원에는 전신학교(농업학교)가 주재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흔적과 4.19의 발자취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52년 우리 대학의 개교에는 이승만 전 전남지사의 크나큰 노고가 있었습니다. 총동창회보 25년 12월호에 왜 우리가 이승만 지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게재했기에 여기에서는 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남대병

원 새병원 벽돌 한 잔 쌓기 모금 운동'은 현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모금액이 1원 원이 넘었습니다. 모금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목표는 돈의 액수보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전남대인들만의 것이 아닌 지역민의 건강지킴이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개교한 이래 우리 모교가 이렇게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지역민들께 감사하는 멋진 음악회를 광주와 여수에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좋은 후배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을 위해 창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행정직이 아닌 감사원, 금감원, 국회사무처 등 특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취업설명회를 총학생회와 함께 매달 개최하려고 합니다.

창립 60주년 때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바이칼호

알훈섬 방문, 숭대공원 조성-와 같은 "고려인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돌아보며 고려인들의 삶과 흥분도 장군 등 독립군들의 발자취와 한국학당을 찾는 동행입니다.

그 외에도 기념식과 민주길 걷기, 명감발행, 70년사 제작, 70년 사진전, 70명산 오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동문들의 친목을 꾀하고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동문여러분! 2026년은 장학 117년, 개교 74년, 총동창회 창립 70년, 여수캠퍼스 통합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함께 70년을 자축하고 모교가 추구하는 세계 300위권 대학으로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동 (원예·74) 수석상임부회장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1956년 7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전대인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온 70년,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동문·재학생·지역민의 한마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전남대, 전국 대학 최초 'AI 캠퍼스 대전환' 열었다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AI 캠퍼스 대전환'을 선언하며, 교내 모든 구성원 3만여 명에게 생성형 AI 8종을 전면 무료 제공하는 초대형 혁신에 나섰다. 학생은 물론 교수·직원·연구원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동일한 수준의 AI 무료 구독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국내 대학에서 전례 없는 시도다.

전남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핵심 전략에 따라 전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8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연구·행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대학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이번에 무료 개방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ChatGPT ▲Gemini ▲Perplexity ▲Claude ▲Grok ▲Llama ▲Mistral ▲Qwen 등 총 8종이다. 개인이 8종을 모두 이용할 경우 구독료는 월 약 20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텍스트·

이미지 생성, 고급 검색, 코드 작성·분석, 다국어 번역, 데이터 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교육·연구·행정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이번 생성형 AI 8종 무료 제공은 전남대 구성원 모두가 AI 역량을 갖춘 'AI 기반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해 전남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전남대학교와 KT 간 체결한 '글로벌대학 도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마련된 것이다. 전남대와 KT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산학 협력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새로운 교육·연구·산업 모델 창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대, 2026학년도 정시 경쟁률 4.33대 1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4.33대 1을 기록하며, 2019학년도(4.11대1) 정시모집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283명 모집에 5,5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33대 1을 나타냈다. 전형별로는 수능(일반) 전형 문화관광경영학과가 23.0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능(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주요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간호학과 2.47대 1 △의학과 3.94대 1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4.50대 1 △약학부 7.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2026년 1월 14일 예능 실기고사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면접을 실시하며,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1월 22일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 별세

5·18 진상규명 등 평생 헌신



오월 어머니들의 정신적 지주인 안성례 초대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별세했다. 향년 88세. 안성례 전 관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투쟁에 헌신해 온 광주 대표적 '오월 어머니'이자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다.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 간호감독으로 계엄군의 폭력에 다쳐 실려온 시민들을 돌보았으며, 5·18 이후로도 5·18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 등에 헌신했다. 5·18민주화운동 직후 구속자가족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6년부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1년부터는 광주시

의회 의원에 세 차례 당선되면서 전국 최초 3선 여성시의원으로 이름을 남겼다.

안성례 전 관장은 지난 2001년 광주에서 5·18 당시 사망하거나 구속,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 가족인 여성들의 모임인 '오월여성회'를 창립했다. 이후 2006년 '오월 어머니회'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뒤 같은 해 광주시 동구 장동에 오월어머니집을 개관하고 초대 관장을 역임했다.

이후로도 5·18광주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유공자유족회 이사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조직들에서 활동했다.

2026 丙午年

www.kjbank.com

광주은행

창립 70주년 '재학생 아카데미' 준비 회의 개최

특별강연,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한 '재학생 아카데미'가 준비 모임이 12월 26일 경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과 객원재 위원, 박지민 위원, 모교 윤동규 총학생회장, 김경서 부총학생회장, 서은상 문화체육국장, 김유정 사무국장, 고휘현 시설안전국장, 이송재 대외협력국장, 이찬민 미디어홍보국장 등 총동창회 김영필 총동창회 사무처장, 정주영 총무부장 등 12명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역 기반 창업과 특수 직군 사례를 통해 후배 동문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재학생 아카데미'는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강연, 멘토링 및 네트워킹과 우수 참여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를 학습하고 대학-동문회-재학생 간 만남을

통해 동문간 유대감 강화 및 모교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동문회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재학생 아카데미 준비 회의 참석자들은 "모교 후배들에게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세대 간 교류와 지속 가능한 대학 커뮤니티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범대학동창회 송년의 밤 '하우스 콘서트' 개최

사범대학동창회(회장 문병채)가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동문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송년의 밤 '하우스 콘서트'를 12월 22일 도곡 실크로드에서 개최했다.



음악회 끝에 다 함께 참여하는 가곡 부르기 시간은 마음 깊이 자리한 대학 시절과 낯선 이국 땅의 감성을 끌어내는 시간이었다.

화려한 만찬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반가웠으며, 대학 시절 추억이 되살아나고,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문병채 사범대학동창회 회장은 "오늘 송년의 밤은 2025년 1

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2026년 사범대동창회 동문들 모두가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범대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함께, 다과 및 답소 시간을 가진 후 기념사진 촬영 후 헤어졌다.

이번 송년회 선율로 이어진 동문들이 인연이 계속되어 "사도(師道)의 길 위에 핀 동문의 정(情!)"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제 10대 여성용봉회 송년회 개최



본회 제10대 여성용봉회(회장 박명숙) 송년회가 12월 23일 달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는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박명숙 여성용봉회 회장을 비롯한 여성용봉회 동문 회원들이 참여해

즐거운 분위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박명숙 여성용봉회 회장은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인만큼 여성용봉회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전원 동문·재학생·교수진 함께 홈커밍데이 성료

정경식 MBA 총동창회장 장학금 전달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고준)은 12월 13일 광주 어반브룩에서 '2025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홈커밍데이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동문과 재학생, 교수진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정경

식 MBA 총동창회장과 임원진이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300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회장 이만신)와 경영자과정 총동창회(회장 오영수) 임원진도 참석해 굳건한 연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

무등지부 송년모임 개최



본회 무등지부(회장 장영태) 송년모임이 12월 29일 동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이호

근, 김창현, 손희하, 변연학, 김창호, 정현철, 강훈열, 이윤모, 김태훈, 윤현두 동문이 참석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송년모임 성료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최희동) 송년 모임이 12월 23일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는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과 안기완 교수, 강만중 교수, 문재학 학장 등을 비롯해 2025년 학생회장단과 2026년 학생회장단까지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는 2026년 활동할 서재현(산림자원·24) 회장과 모감초(응용생물·24) 부회장을 뽑아 축하를 전했다.

또 1년 동안 수고한 2025년도 이유빈(농업경제·20)·김욱



주(응용생물·23) 학생회장단에 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최희동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은 "농생대의 발전은 전남대,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과 맞닿아 있다"며 "농생대 동창회는 모교와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전남대, 5·18 묘지 참배로 새해 열어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1월 2일 아침 5·18 묘지 참배로 새해를 열었다.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과 모교 이근배 총장과 교수평의회 의장, 부총장, 대학원장 등을 비롯한 보직교수, 총학생회장과 임원 등 40여 명이 함께 5·18 묘역을 참배하고, 전남대



관련자 31위에 대해 각각 헌화 하고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경전원 최고경영자과정 32기, 모교에 3200만원 기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32기 원우회가 지역 리더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주듯, 구성원 28명이 심시일반 모은 3천2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하며 '지방 국립대 유일 경영전문대학원의 미래 도약에 힘을 실었다'.

12월 1일 대학본부 5층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김양현 교학부총장, 고준 경영전문대학원장, 최용득 부원장과 32기 원우회 심재관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최고경영자과정 제32기 재학생 28명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심재관 32기 원우회장은 "32기 원우회 모두가 경영전문대

학원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이번 기부가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동창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서울동창회(회장 임성주)가 지난 12월 27일에 임성주 서울동창회장 주관으로 고문단(역대 서울동창회장, 포럼 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전 고문, 이연의 고문, 장원의 고문, 박찬선 고문, 최낙원 고문, 김해근 고문(포럼 전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동창회 임원단 임성주, 심재관, 박양수, 김종락, 이동번, 위성암 동문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동창회의 역사와 고문단들이 회장으로 각각 활동했던 시기를 회고하고 현 서울동창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동창회 고문들은 ▲시대대에 맞는 동창회 변화 필요(특히 30~40대 주니어 연령대 참여 방안 마련) ▲재정 2배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2026년 상반기 연간행사 확정 ▲총동창회 70주년 및 병원건립 모금 안내 등을 논의하며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후 오는 2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예정된 '서울동창회 총회 및 이·취임식'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동창회 독서회 취미동호회 창단



서울동창회 독서회 취미동호회가 지난 12월 창단했다. 독서회는 안상수(정치외교·71) 준비위원과 동문들의 4개월간의 노력 끝에 서울동창회 8번째 취미동호회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동창회에는 산악회, 골프회, 당구회, 라이딩회, 인문학트레킹회, 서화회, 명화관람회 등 7개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창단한 독서회는 지난 12월 17일 마포 서울동창회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니체의 '위버멘쉬(어니니머스 율김)'를 선정해 안상수 동문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양수, 한상석, 박경식, 한창환, 위성암 동문이 참석했다. 독서회 2차 모임은 1월 15일에 8명의 동문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상석 좌장의 발제로 '임종국 평전(저자 정운현)'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독서회는 매월 1회(매월 3번째 목) 열리는데 발제자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또 회원들이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독서 기증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기증 받은 도서는 동창회 사무실 내에 비치해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무등산 신년 등반과 함께 총동창산악회 정기총회 열어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6년 1월 정기산행기

1월 3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전남까지 매섭게 불던 눈발이 그치고 비교적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무등산을 찾았다. 이날 산행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근교에서 가볍게 산행을 하고, 정기총회를 하는 신년 산행이다.

동적골 입구에서 윤림중학교 뒷길을 지나 '광산이씨제각'부터 산길에 들어선 후, 계곡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향로봉 안

부(鞍部)다. 향로봉으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흥국사 방향으로 하산했다. 이어 동적골 인근 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회장직을 수행하며 회 발전에 기여한 강훈열(법학)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산악회를 빛낸 회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12번 산행 가운데 11번을 참여한 김운곤 회원에게 '최우수회원상', 부부가 함께 가장 많이



참석한 신철섭·강성욱 부부에 게 '임교부부상', 여러 번 찬조를 한 박명숙 부회장에게 '감사상', 누리소통매체 등에 홍보를 열심히 한 이도향 이사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끝으로 최근 자녀를 출산한 차상혁·장

박원 부회장의 파페라까지 화려한 공연이 이어졌다. 또 자기 자랑 및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채복경 회원과 고현주 회원의 찬조가 더해져 더욱 푸짐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2월 7일(토요일)에는 눈꽃산행을 주제로 대둔산을 가고, 3월 7일(토요일)에는 무등산 의상봉에서 시산제를 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재관 총무(010-6661-1800)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김선생의 광주사랑” ④8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의미를 생각한다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약무호남 시무국가 -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는 없다.” 일본의 해군을 상대로 23전 23승의 전무 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순신 장군의 말이다. 후자는 충무공의 말이 호남이 조선을 먹여 살린 곡창지대였다는 점, 의병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칠 때 전라도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이와 같은 전라도의 의미를 불세출의 명장이 풀렸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전쟁에 임하고 있던 이순신은 전라도의 위치가 가진 전략적 의미에 더 관심이 많았던 듯하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들어보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한산도로 옮기고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선조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선조실록에서는 전라도와 함께 경상도를 언급한다. “그러나 조선의 형세를 살펴보면 전라도와 경상도 2도가 가장 중요하다. 경상도는 문화이고, 전라도는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경상도가 없으면 전라도도 없어진다. 그리고 전라도가 없으면 다른 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은 끝내 의지하여 버틸 계획이 사라지고 만다.” 마지막 문장에서 전라도가 차지하고 있던 경제적 전략적 의미가 확인된다. 선조실록에는 “전라도의 바다가 풀리면 진도와 완도 등의 섬들이 왜적에게 밀어지고 서울까지 위협하게 된다. 나아가서 바람을 잘 타면 며칠이 못되어 왜선들이 압록강까지 들이닥칠 것”이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전라도는 한양과 명나라를 지키는 길목이요 인후였다. 열 두척의 관옥선으로 300척의 일본 전함을 격파한 명량해전은 전라도는 물론 한양, 명나라까지도 지켜낸 전쟁이었다.

**맑은 물처럼 투명한 마음,
맑은 빛처럼 따뜻한 존중**

광주환경공단

수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오기석 회장 이임, 김용환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회장 김용환)가 12월 18일 광주 리마디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오기석 16대 회장이 이임하고 김용환 17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과 김영필 사무처장, 백남수 전라남도 수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남용(7대), 신종봉(12~13대), 손해수(14~15대), 오기석(16대) 회장을 포함한 역

대 동창회장단이 자리를 빛냈다. 또 박상익 전남대 수의대 학장, 김동일 부학장, 이봉주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장 등을 비롯한 교수진들과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재학생까지 참석해 동창회와 학교 간 긴밀한 연대를 보여줬다.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은 수의사의 권익 향상과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한 신종봉 동문에게 수여됐다. 공로패는 동창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오기석, 김용선, 우

남일 동문이 받았고 김중선 전남대 수의대 교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단과대학 동창회와 총동창회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고 함께한다면 동문 화합과 후학 양성의 목표에 다가가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남대 총동창회도 수의과대학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기석 이임 회장은 “임기 동안 동문과 재학생, 모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과제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문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고 한 사람의 동문으로서 동창회를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환 17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 유대 강화 △후배 인재 양성 지원 △수의학 전문성 향상과 사회적 기여 확대 △지역사회 및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동문기고 - 이 상 일(농업경제·79, 대한사회복지신문 회장, 법무법인 성현 상임고문) 동문

인생 후반전을 SMART하게 삽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60년에 4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 속에서 ‘스마트(SMART)’라는 개념을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SMART’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해석하면, S는 ‘웃음(Smile)’을 의미한다. 웃음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엔돌핀을 생성하여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M은 ‘긍정적인 사고

(Mind)’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주변 분위기를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A는 ‘감사(Appreciate)’이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지면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

끼고 만족할 수 있다. R은 ‘인간 관계(Relationship)’이다. 인간 관계는 가정, 직장, 사회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T는 ‘소통(Touch)’이다. 작은 음식이라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상하는 것처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과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감성이 중요한 시대에 소통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ART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이 개념을 현대 사회에 맞춰 풀이해 보았다. 매일 함께 하는 스마트폰처럼, 우리도 인생 후반전을 스마트(SMART)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이자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당신 곁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37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문, 후배를 잇는 가교가 되어 모교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동문들의 자랑이 되는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들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소중한 동창회비 납부로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에 함께해 주세요.
☎ 동문 참여(기고·수상·승진·출판 소식 등) 환영합니다.
☎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강동준(국어국문·85) 부회장

무등일보 총괄사업국장 겸 전무이사 취임



강동준(국어국문·85) 부회장이 2025년 12월 무등일보 총괄사업국장 겸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강동준 부회장은 1966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1992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무등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편집국장, 마케팅사업본부장, 상무이사, 총괄상무 겸 사업협력국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언론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특히 사랑방닷컴, 사랑방뉴스룸과 연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열정을 쏟았으며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해 전문가 시각이 반영된 심층 분석과 집중 제작으로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에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강지훈(전기공학·00) 동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강지훈(전기공학·00, 전남대 교수) 동문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지훈 동문은 전남대학교 여수산학협력본부장과 전남 RISE사업단장을 맡아, 지역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도출한 5대 핵심 분야, 10개 단위과제(총 사업비 235억 원 규모)를 기획·총괄했다. 특히 대학·기업·연구소·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지산학연 컨소시엄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대학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학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 강창우(산업공학·92) 상임부회장 푸른용봉회장

삼성에스원 서울본부장 취임



강창우(산업공학·92) 상임부회장이 ㈜에스원 서울본부장으로 2025년 12월 취임했다. 강창우 상임부회장은 1996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에스원에 입사하여 서광주지사장, 본사 인사지원그룹장, 호남본부장, 경인본부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국민 안전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전남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 푸른용봉회 회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한편 ㈜에스원은 각 분야에서 성과와 리더십이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 박성완(미술·03) 동문

2025 오지호 미술상 특별상 수상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25 오지호미술상 시상식에서 (미술·03) 동문이 특별상을 받았다. 박성완 동문은 소소한 일상과 삶의 주변 모습을 인상과 기법으로 재해석하여 화폭에 담아내왔다. 민주와 운동부터 최근 탄핵 시위까지 순수 회화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시대 참여적 시선을 견지해온 점에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성완 동문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후, 동 대학 서양화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8 장수미술관(전북 장수), 2017 롯데갤러리(광주), 2016 차이나하우스(말레이시아 페낭) 외 다수의 개인전 및 2012 말리홀레지던시(말레이시아 페낭) 등에 참여한 바 있다.

■ 윤경철(의학·88) 상임부회장

한국각막질환연구회 회장 취임



윤경철(의학·88, 전남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상임부회장이 최근 한국각막질환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국각막질환연구회는 안과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위해 1995년 창립된 학회로, 산하에 감염, 면역, 재생, 신경, 건강안, 마이봄샘의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윤경철 상임부회장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건강안 연구 동물실험실을 개설했으며, 한국콘텐츠학회 회장, 대한안과학회 학술위원장 및 수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아시아각막학회 학술위원장, 미국 시과학안과학회 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 김윤하(의학·79) 동문

임산부 위한 지침서 5번째 발행



김윤하(의학·79, 전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 동문이 임산부를 위한 의학지침서 '아침에 읽는 임산부를 위한 건강이야기' 다섯 번째 책을 발간했다. 국내 모체태아의학 분야 명의로 손꼽히는 김 센터장은 정상 임신과 해마다 증가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예방, 치료, 추적관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발행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첫 발행 이후 2019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한 이번 책은 ▲임신준비 및 산전관리 ▲임신 중 건강 및 약물관리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신 ▲분만 등 10개의 대단원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 위평량(국어국문 박사·94) 동문

'전국 사투리 지도' 첫 출간



위평량(국어국문 박사·94,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동문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전국 방언 분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대화의 높임법을 비롯해 음운, 통사, 친족어휘 등 방언의 주요 요소를 100장의 언어지도로 시각화하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한국어의 전체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언어 사용 방식인 '대화와 어법'을 중심으로 방언을 분석해 학문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출간은 지역 언어를 단순한 방언이 아닌 한국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조명하고,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언어 인식을 학문적으로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위평량 동문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도 말 보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윤남웅(미술·83) 동문

'바람을 위한 드로잉' 전시회



농부화가 윤남웅(미술·83) 동문이 예술이백그라운드에서 1월 10일까지 '바람을 위한 드로잉' 전시를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바람'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20여 점의 신작이 걸렸다. 윤남웅 동문은 "고향 진도로 귀향한 이후 지난 8년간 삶의 현장에서 일군 다양한 부분들을 회화로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라며 "농사를 지으며 몸으로 체득한 삶의 철학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송도호(어업·78) 동문

출판기념회 개최



송도호(어업·78, 11대 서울시의원) 동문이 '송도호의 길, 관악과 시민을 위한 의정 이야기'를 출간하고 1월 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송도호 동문은 "관악구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온 송도호 시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비전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다"면서 "관악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의 기록을 담은 책을 읽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도호 동문은 제6·7대 관악구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전)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 개선,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으로 이끈 리더십, 주민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본격 추진하는 등 자질을 인정 받았다.

■ 예술대학 음악학과 총동문회

동문 예술인, 모교 신년음악회 무대 올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총동문회와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가 오는 2026년 1월 8일(목) 모교 민주마루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새해를 맞아 광주 지역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전남대학교 출신의 대표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동수정, 소프라노 윤하나, 바리톤 손승범, 바이올리니스트 정산하가 출연해 각자의 음악적 역량을 펼치며, 지휘자 박인욱이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1월 19일 장학재단 감사, 총동창회 감사
- 1월 29일 경영자과정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2월 4일 서울동창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2025년 12월 30일(화) 전남대 송년음악회
- 2026년 1월 2일(금) 5·18모역 참배
- 2026년 1월 3일(토) 총동창산악회 정기총회
- 2026년 1월 8일(목)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 2026년 1월 12일(월) 명예공학박사 학위수여식
- 2026년 1월 15일(목) 경영대학동창회 신년인사회
- 2026년 1월 15일(목) 전남대학교병원 간담회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혜경
- 편집인 : 김영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2026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www.naju.go.kr/tour



Beyond the Market & Clients' Expectation

PKF 서현회계법인 瑞賢

Seohyun Accounting Corporation
Audit | Tax | M&A | IT Audit | Forensic | Consulting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층 Tel. 02.3011-1100, 02-568-8333
지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4 오션3빌딩 7층
Tel. 062.384.8211, 062.384.7900 Fax. 062.384.8215, 062.381.5678

서현회계법인 대표 선홍규 (경영학과 78입학)



고창웰파크시티 단지 내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매/뇌졸중/파킨슨/노인성질환
수술후 요양/장·단기입원
암요양/호스피스(완화치료)
운동치료
의사, 간호사 1등급
차별화된 목욕 + 식사
넓고 쾌적한 호텔형 병동

한방과 외래진료시간
월~금 08:30 ~ 12:00

입원 상담문의
063-774-7500 / 85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39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문 위원 : 30만원 이상	부 이사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전대총동창회)
---------------	----------------	--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1월분

임원회비 (1월 1일~11월 30일)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조국현(의학·61) 10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재(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반전(경제·60) 30만원

▲김세재(간호·71) 30만원

▲라석천(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의·63) 30만원

▲이정재(경제·25기) 30만원

▲임민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창택(경제·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김인재(간호·62졸) 50만원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구연수(항공·29기) 20만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태중(철학·79) 30만원

▲김만웅(최고경영자·57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영태(경제·72) 30만원

▲김영길(교육·99) 2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연희(경관·98) 6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종평(정치외교·74)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나홍수(산관·17기) 2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석(기독교·72) 30만원

▲신중봉(수의·71) 30만원

▲오광인(입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이신규(행정대학원·6)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장문재(여성지도자과정·47기) 30만원

▲전상선(산관·09기)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정찬구(경제·95) 30만원

▲조종태(명예회원) 30만원

▲전두영(건축공학·73) 30만원

▲최정림(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300만원

상임부회장

▲고병윤(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중선(의학·92) 300만원

▲박영숙(수학·87) 300만원

▲정형희(사법·87) 200만원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30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화(경제·97) 200만원

동창회 감사

▲이재봉(회계·90) 200만원

장학재단 감사

▲이성길(법학·78) 100만원

▲김정민(회계·90) 50만원

부회장(전행위원)

▲민정준(의학·85) 50만원

▲황윤찬(치의학·92) 50만원

단과대학회장

▲박연익(식품영양·90) 50만원

▲박승렬(간호·74) 50만원

▲손화희(국어국문·75) 50만원

▲김주현(철학·79) 50만원

▲오기석(수의·77) 50만원

▲서해현(의학·75) 50만원

▲이만선(경관·25기) 50만원

▲류상승(해양·82) 50만원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강대광(농업경제·82) 50만원

▲강형선(기계공학석사·02) 50만원

▲강훈열(사원공학·70) 50만원

▲고병욱(철학·98) 3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고영철(신소재공학·99) 50만원

▲고창욱(최고경영자과정) 10만원

▲김건안(사회목회복지·19) 50만원

▲김남균(원예·82) 50만원

▲김동찬(경제·26기) 50만원

▲김영근(사학·85) 50만원

▲김병호(의학·79)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정원(경영·80) 50만원

▲김성홍(사법·91) 5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60만원

▲김용권(다문화협력동행사·94) 50만원

▲김용집(행정대학원·82) 50만원

▲김용환(수의·85) 50만원

▲김윤세(경제·107기) 50만원

▲김재용(경영·88) 50만원

▲김재찬(행정석사·12) 5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정후(영어영문·80) 50만원

▲김정희(정치·86)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충준(무역·78) 50만원

▲김준안(정치외교·95) 50만원

▲김진혁(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해경(경영석사·03) 2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나수진(농생물·88)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상익(항공·88)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영(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류재민(경영석사·02) 30만원

▲류현호(의학·89) 50만원

▲맹종호(입학·84)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 인(토목석사·96) 50만원

▲문재용(기계공학·85) 50만원

▲민기홍(행정석사·9) 50만원

▲민상준(경영석사·11) 50만원

▲박경우(신문방송·86) 50만원

▲박배호(농학·87)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서연(화학공학·88) 50만원

▲박영운(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 원(행정·85) 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백지훈(신문방송·90) 50만원

▲법희승(의학·76) 5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유승(중어중문·84) 20만원

▲선종욱(농학·86) 50만원

▲손창환(회계·77) 50만원

▲손해수(수의·85) 30만원

▲송승욱(정치외교·81) 50만원

▲신명근(의학·83) 50만원

▲신재연(간호·76) 50만원

▲안영근(의학·83)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양혜련(치의학·81) 2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우남일(수의·88) 50만원

▲윤 익(미술·84) 50만원

▲이경준(법학·76)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수(행정석사·0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이승택(의학·82) 50만원

▲이연동(경관·14기) 50만원

▲이인호(법학·92) 3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이상복(의학·91) 50만원

▲임종대(금속공학·84) 50만원

▲임지락(원예·83)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장상문(농공학·81) 30만원

▲전창주(제약·82) 30만원

▲정관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 남(미술·90) 10만원

▲정덕근(일반행정·3) 20만원

▲정순근(항공·23기) 20만원

▲정장규(경관·28기) 3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15) 50만원

▲정해정(농학·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조상현(농업경제·82) 50만원

▲조진형(치의학·91) 50만원

▲주중석(철학·88) 50만원

▲차정은(행정·67기) 30만원

▲최정희(사법·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최현진(무역·89) 50만원

▲한태호(원예·88) 10만원

▲홍경설(행정·87) 10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상임이사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신종혁(신문기자·99) 3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종명(정치외교·98) 30만원

이 사

▲임동국(약학·03) 20만원

▲정경훈(약학·11) 20만원

▲전미희(식품생명공학·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11월 30일)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허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김 원(의학·76) 5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신종혁(신문기자·99) 3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종명(정치외교·98) 30만원

이 사

▲임동국(약학·03) 20만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6호(2025.7.5. - 2026.7.4.)

www.kait.com

부동산신탁의 믿음직한 파트너

엠디엠, 엠디엠플러스, 엠디엠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캐피탈이
종합부동산금융그룹으로 하나되어
대한민국 부동산신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KAIT 한국자산신탁



MDM 그룹

M) M 엠디엠

M) M+ 엠디엠플러스

M) M 엠디엠자산운용

KAIT 한국자산신탁

KAIC 한국자산캐피탈